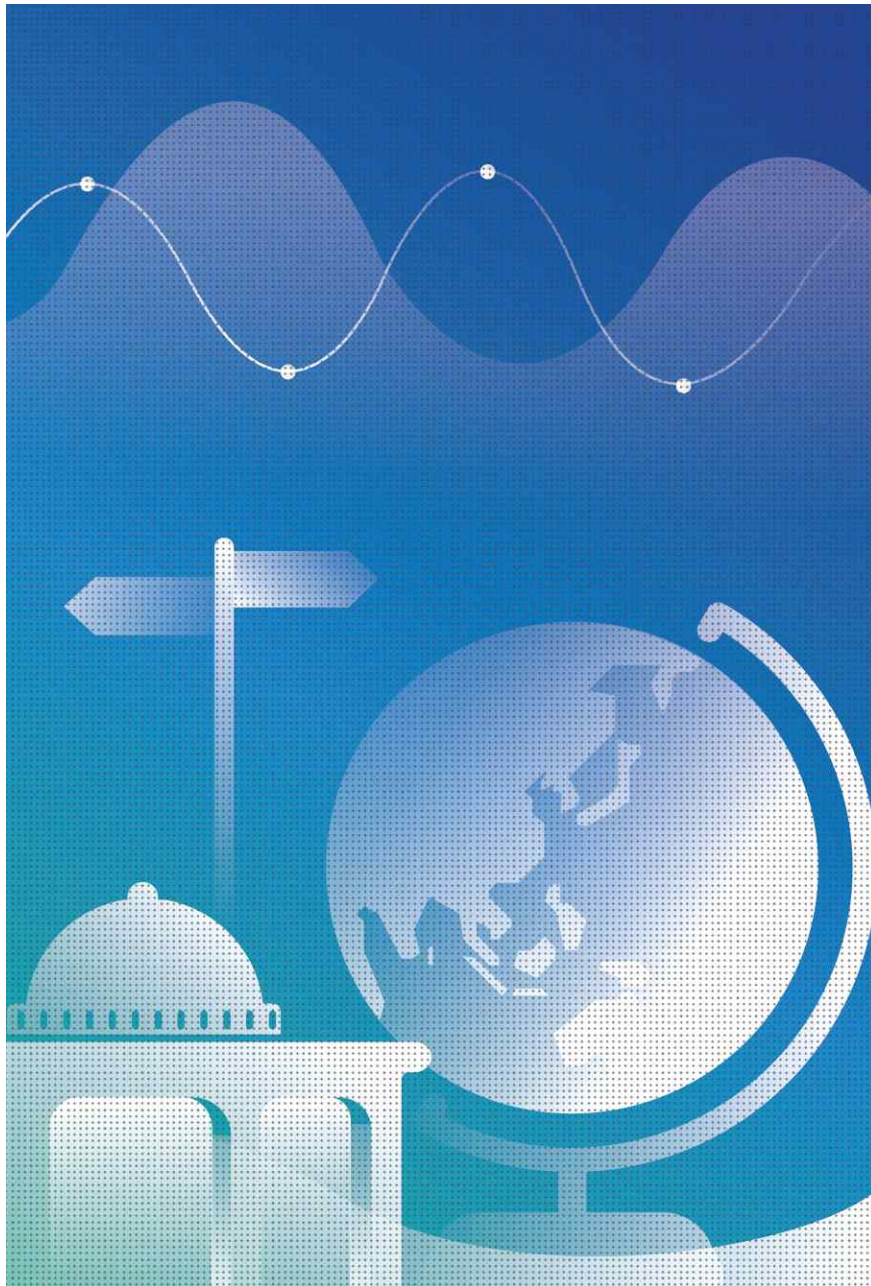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12(2021.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 발효와 향후 전망



CONTENTS

- I.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REC) 현황
- II.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현황
- III. AfC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 IV. 시사점 및 전망

작성

책임연구원 김경하 (6252-3598)

kh_kim@koreaexim.go.kr

<요 약>

-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은 1994년 아프리카의 자주적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를 창설함.
 - AEC는 34년 동안(1994~2028) 여섯 단계를 거쳐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경제공동체(REC)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함.
- **(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REC))** AU는 동부(EAC, IGAD), 서부(ECOWAS), 남부(SADC), 북부(AMU), 중부(ECCAS), 중남부(COMESA), 그리고 북부 및 사하라 이남 지역(CEN-SAD) 총 8개의 지역경제공동체(REC)를 AEC의 구성체로 인정함.
 -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개 REC의 역내 통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무역통합의 경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CFTA는 REC별 상이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합하고 아프리카 무역 자유화와 경제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됨.
 - 2019년 7월 공식 출범, 2021년 1월 공식 발효되었으며, 2021년 10월 기준 창설에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은 에리트레아를 제외하고 54개 회원국 중 총 41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함.
- **(전망)** AfCFTA 협정 아래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이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장벽의 97%를 철폐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역내무역의 활성화가 전망되며, 지역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외부의존 감소,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과제)** AfCFTA는 회원국별 경제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독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혜택은 국가별 제조업 및 인프라 발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AfCFTA를 통한 관세 철폐와 무역 규정의 통일로 거점국에서 인접국 및 다른 지역 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fCFTA가 공식 발효된 현재 우리나라도 AfCFTA의 적극 활용을 위한 거점국 선정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대 아프리카 협력 및 진출 확대는 미래 시장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중요함. 따라서 효과적인 협력 및 진출을 위한 AfCFTA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망 분야 및 시장 수요를 고려한 협력 및 진출 분야 선정이 필요함.



I.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REC) 현황

지역별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 REC) 창설

-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은 1963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의 창설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음.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OAU는 아프리카인들의 연대와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이념을 바탕으로 창설되었으나, 내정 불간섭 원칙과 비효율성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7년 해체됨.¹⁾
 - *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 통치 경험의 영향으로 인한 내정 불간섭의 고수로 회원국의 인권 유린 및 정변 사태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여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둔 결과 사실상 통합 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함.
- OAU를 승계하여 2002년 출범한 AU는 OAU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식민지배 종식 등의 정치적 아젠다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대륙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역통합, 평화 및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며 인권 유린 등의 상황에서 회원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권한을 가짐.
- 또한, 아프리카의 자주적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하여 1975년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for Action)*과 1991년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을 통해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가 창설됨.
 - AEC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개발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체계 확립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 개발, 인적 및 물적 자원 동원 등을 목표로 함.
 - 1994년부터 2028년까지 34년 동안 여섯 단계를 거쳐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경제공동체(REC)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함(표1 참고).
 - * 라고스 행동계획: 아프리카의 자립을 증진하고 아프리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방 국가와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 ** 아부자 조약: OAU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근접한 수준의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조약

<표 1>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발전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간	1994~99(5년)	1999~07(8년)	2007~17(10년)	2017~19(2년)	2019~23(4년)	2023~28(5년)
주요 내용	-REC 창설 또는 강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안정화 -공동 대외관세 준비	-각 REC별 FTA 및 관세 동맹 창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통일 -공동 대외관세 도입	-재정 및 통화 정책 통일 -자유 이동, 거주 및 설립의 권리 실행	-의회 및 집행 기구 창설 -단일 통화 구축 -단일 역내시장, 경제 및 통화 연합 창설 -아프리카 공동시장 강화

자료: AU(2020), p. 27; 이재훈 외(2019), p. 31.

1) 변웅(2014), p. 3.



아프리카에는 8개의 지역경제공동체(REC)가 존재

- AU는 동부(EAC, IGAD), 서부(ECOWAS), 남부(SADC), 북부(AMU), 중부(ECCAS), 중남부(COMESA), 그리고 북부 및 사하라 이남 지역(CEN-SAD) 총 8개의 REC를 AEC의 구성체로 인정하였으며(표2 참고), 이외에도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CEAO),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마노강동맹(MRU), 중부아프리카관세경제동맹(UDEAC),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 등이 존재함.
- 가장 오래된 REC는 ECOWAS로 1975년 설립되었으며, EAC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주도로 1967년에 창설되었으나 10년 만인 1977년 해체된 후 2000년 재설립됨.

<표 2>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REC)

공동체/항목	설립일	회원국	본부	인구(2019)	GDP(2019)
AMU (아랍마그레브 연합)	'89.2.17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알제리, 튀니지(5개국)	라바트 (모로코)	3억 6,000만 명	6,300억 달러
CEN-SAD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	'98.2.4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베냉,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트디부아르(23개국)	트리폴리 (리비아)	6억 2,680만 명	1조 3,507억 달러
COMESA (중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	'94.12.8	남수단,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부룬디, 세이셸, 수단,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코모로, 케냐, 콩고민주공화국(20개국)	루사카 (잠비아)	5억 7천만 명	4,200억 달러
EAC (동아프리카 공동체)	'00.7.7.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6개국)	아루샤 (탄자니아)	1억 7,700만 명	1,937억 달러
ECCAS (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83.10.18	가봉, 르완다, 부룬디, 상토메 프린시페, 앙골라,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DR 콩고(11개국)	리브르빌 (가봉)	1억 8,200만 명	2,100억 달러
ECOWA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75.5.28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15개국)	아부자 (나이지리아)	3억 8,100만 명	6,696억 달러
IGAD (동아프리카 정부간개발기구)	'96.11.26	남수단,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지부티시티 (지부티)	2억 8,270만 명	2,530억 달러
SADC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92.8.17	나미비아, 남아공,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이셸, 앙골라, 에스와티니, 잠비아, 짐바브웨, 코모로, DR콩고, 탄자니아(16개국)	가보로네 (보츠와나)	3억 6,000만 명	6,5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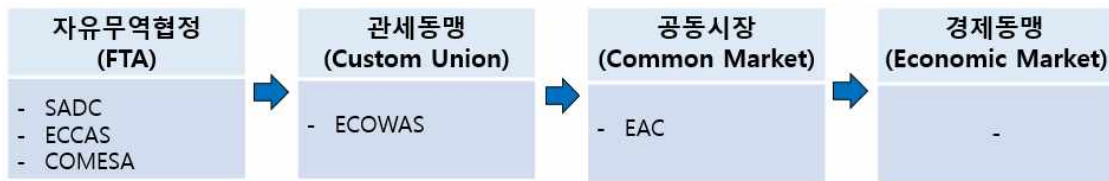
출처: 각 공동체 웹사이트; AU(2020)

* 최근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21.10.13기준)



- 회원국들은 REC를 통해 역내 교역 확대 및 경제적,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REC는 FTA(회원국 간 관세 철폐 협의), 관세동맹(역외 공동관세 협의), 공동시장(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협의), 경제동맹(단일통화 출범, 경제적 통합 및 공동의회 설치 등 정치적 통합) 단계까지의 발전을 목표로 함(그림 1 참고).
- EAC는 2010년 7월 1일 EAC 공동시장을 공식 출범시키며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였고, COMESA, ECCAS, SADC은 각각 2000년, 2004년, 2008년에 FTA를 출범시켰으며, ECOWAS는 2019년 관세동맹을 출범시킴.
- IGAD는 2009년 FTA를 창설하였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며, AMU는 공동 목표의 결여, 지역적 통합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등의 문제로 회원국 간 FTA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Malhotra, 2021).

<그림 1> 지역 무역 협정 발전단계



자료: 정재욱 외(2019),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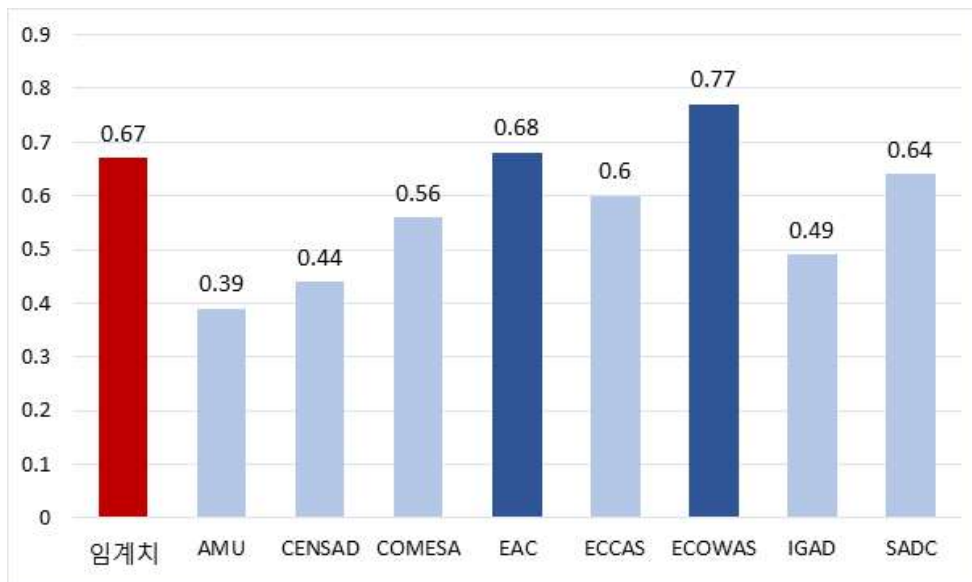
8개 REC의 역내 통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

- AU의 아프리카 다중 지역통합 인덱스(The African Multidimensional Regional Integration Index: AMRII)²⁾에 따르면 REC는 AEC에 도달하기 위하여 0~1점 범위에서 평균 0.67점을 기록해야 하나, 현재 REC 평균은 0.56점으로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그림 2 참고).
- 통합 수준은 ECOWAS, EAC, SADC, ECCAS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계치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공동체는 EAC와 ECOWAS 단 두 개였고, 이 중 ECOWAS는 0.77점으로 공동시장이 출범한 EAC보다 높은 통합 수준을 보여줌.
- ECCAS는 아프리카 4대 주요 REC 중 하나인 COMESA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ECCAS 내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선전으로 평균 점수가 상향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실제 공동체의 통합 수준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사료됨.
- 북아프리카 지역 REC인 AMU는 기준치의 약 절반 정도의 낮은 통합 수준을 보임.
- 항목별 통합 수준에서는(표 3 참고) ECOWAS가 5개 분야에서 임계치를 넘으며 REC 중 통합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는 EAC와 SADC이 각각 3개 분야에서 임계치를 넘김.
- EAC와 ECOWAS는 특히 자유 이동 부문에서 높은 진전을 보였는데, 실제로 두 공동체는 회원국 간 비자 폐지, 공동체 여권 재정, 사람의 자유 이동 촉진 관련 법제화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행 중임.

2) AMRII는 아프리카 지역통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G)와 RECs, 중앙은행, 통계청의 참여로 개발된 지표로 기존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가 개발한 아프리카 지역통합 지표(the African Regional Integration Index: ARII)에서 측정 분야를 추가하여 총 8개 분야 33개의 지표로 구성됨(AU, 2020, pp. 22-24).

- 반면, ECCAS와 CEN-SAD 등의 REC는 자유 이동 관련 어떠한 제도도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공동체 소속 회원국이 ECOWAS나 EAC와 같은 뛰어난 진전을 보이는 공동체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인해 공동체의 평균 점수가 상향됨.
- 또한, 지역통합 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무역통합의 경우 임계치 0.78에 미치는 REC는 없었음.
- 종합적으로 4대 주요 REC인 EAC, ECOWAS, SADC, COMESA와 ECCAS를 제외하면 지역통합은 매우 미진한 수준이며, 특히 무역통합의 경우 모든 REC는 AEC의 달성을 위한 임계치 도달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2> REC별 전반적 통합 수준 비교



자료: AU(2020), p. 25.

<표 3> 항목별 통합 수준 비교

항목	AMU	CENSAD	COMESA	EAC	ECCAS	ECOWAS	IGAD	SADC	평균	임계치
자유 이동	0.23	0.67	0.60	1.00	0.69	0.99	0.50	0.57	0.66	0.75
사회 통합	0.27	0.34	0.46	0.75	0.52	0.81	0.50	0.56	0.53	0.60
무역 통합	0.30	0.35	0.60	0.74	0.51	0.68	0.42	0.38	0.50	0.78
금융 통합	0.35	0.33	0.69	0.58	0.65	0.61	0.54	0.61	0.59	0.60
화폐 통합	0.41	0.48	0.63	0.63	0.54	0.72	0.63	0.51	0.54	0.60
인프라 통합	0.67	0.54	0.61	0.75	0.45	0.53	0.51	0.66	0.57	0.63
환경 통합	0.44	0.31	0.50	0.45	0.69	0.75	0.50	0.72	0.55	0.70
정치 및 제도 통합	0.46	0.46	0.42	0.48	0.72	0.88	0.36	0.50	0.54	0.70

자료: AU(2020),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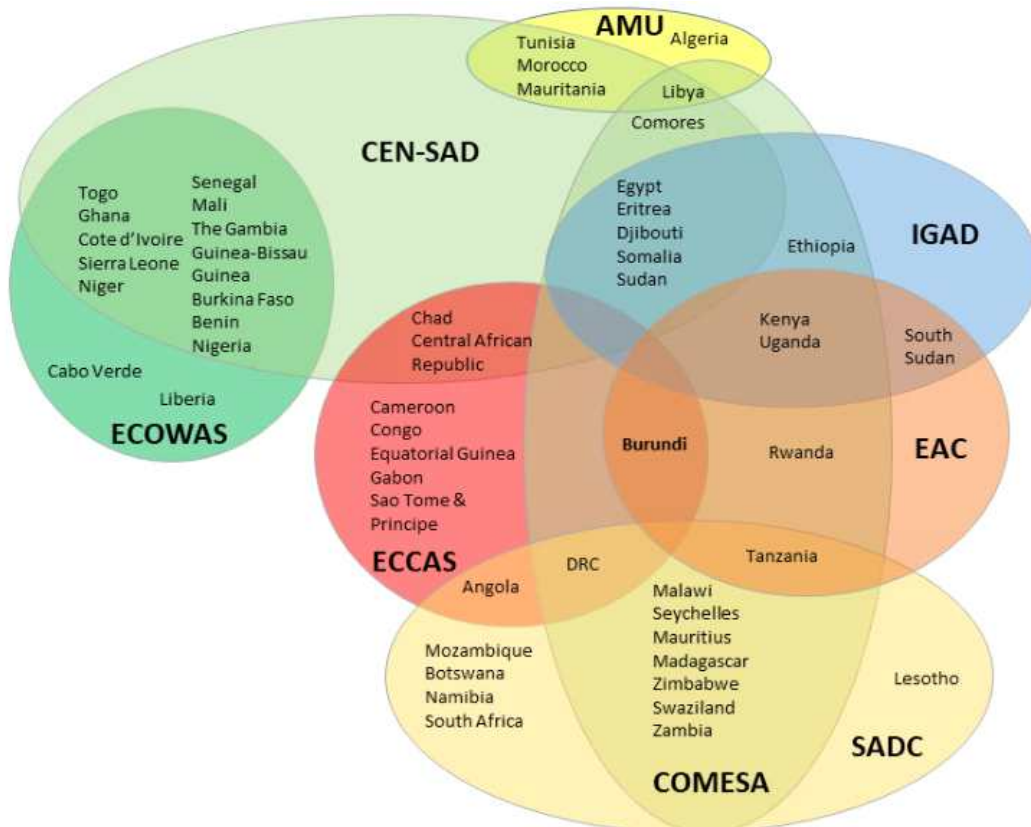
주) 파란색: 임계치 초과, 빨간색: 분야별 최저점



회원국들의 REC 중복 가입 또한 지역통합의 큰 장애물로 작용

-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일컬어질 만큼 1개 이상의 REC에 중복으로 가입한 상황임(그림 3 참고).
 - 케냐³⁾, 에티오피아, 르완다, 지부티, 부룬디,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 9개 국가는 3개 이상의 REC 회원국이며, 30개 이상의 국가는 2개 이상의 REC에 가입하였음.
- 이 같은 중복 가입은 국가마다 다른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적용으로 국가 간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하며, 이로 인한 시간과 노력, 자원의 낭비는 지역 내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함.
 - 그 결과 REC를 통한 역내무역 증진 효과는 미미한 편이며, 오히려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후생손실을 초래함.
 - 또한, REC별 발전단계 및 통합 수준이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회원국의 REC 중복 가입은 지역통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경제통합 과정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

<그림 3> REC 회원국 중복 현황



출처: Capon(2019).

3) Nile Basin Initiative(NBI)를 포함할 경우 4개의 REC(NBI, EAC, IGAD, COMESA)에 가입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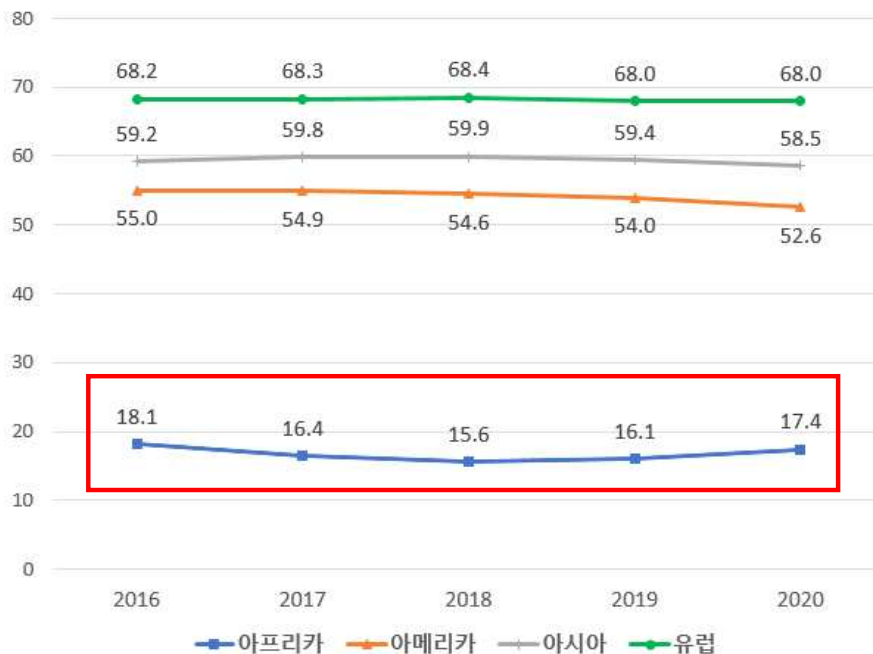


II.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현황

대륙 단위의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가치사슬 및 무역 창출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은 54개국 13억 인구를 연결하는 무역 조약으로, 아프리카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통합을 위하여 출범됨.
- AfCFTA는 라고스 행동계획과 아부자 조약에서 창설된 AEC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력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역내무역을 증진하고 대륙 단위의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빈곤 감소 및 경제적 발전을 이루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임.
- 아프리카 대륙의 무역 통합은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별 상이한 규정 등으로 제한되었고, 여기에 자국 산업 및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무역장벽을 높이며 무역 활성화를 크게 저해함. 그 결과 아프리카의 역내무역은 다른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줌.
- UNCTA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프리카의 총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중은 17.4%로 유럽(68.0%), 아시아(58.5%), 아메리카(52.6%)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역내수입 비중도 14.5%로 유럽과 아시아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임(그림 4,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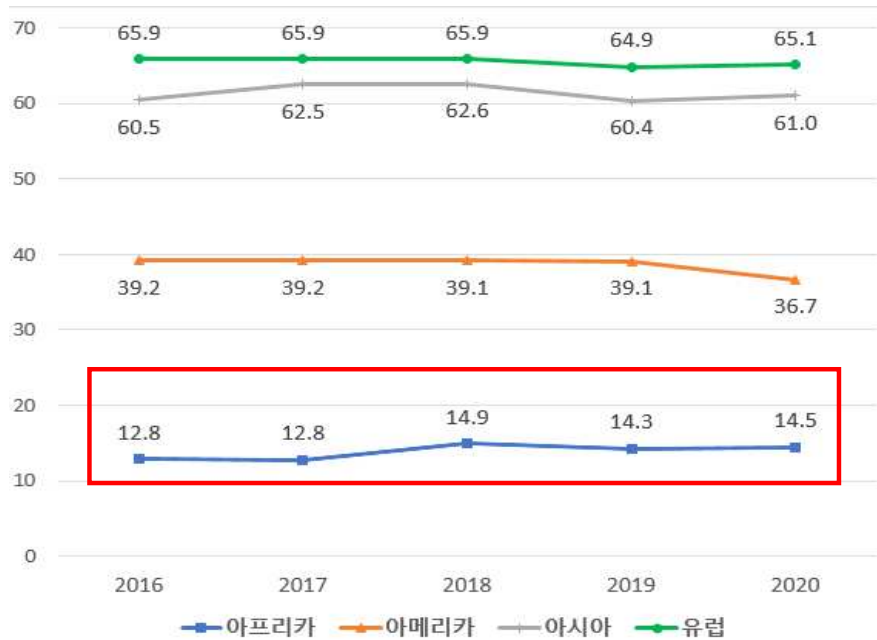
<그림 4> 대륙별 전체 수출 중 역내무역 비중



자료: UNCTAD data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대륙별 전체 수입 중 역내무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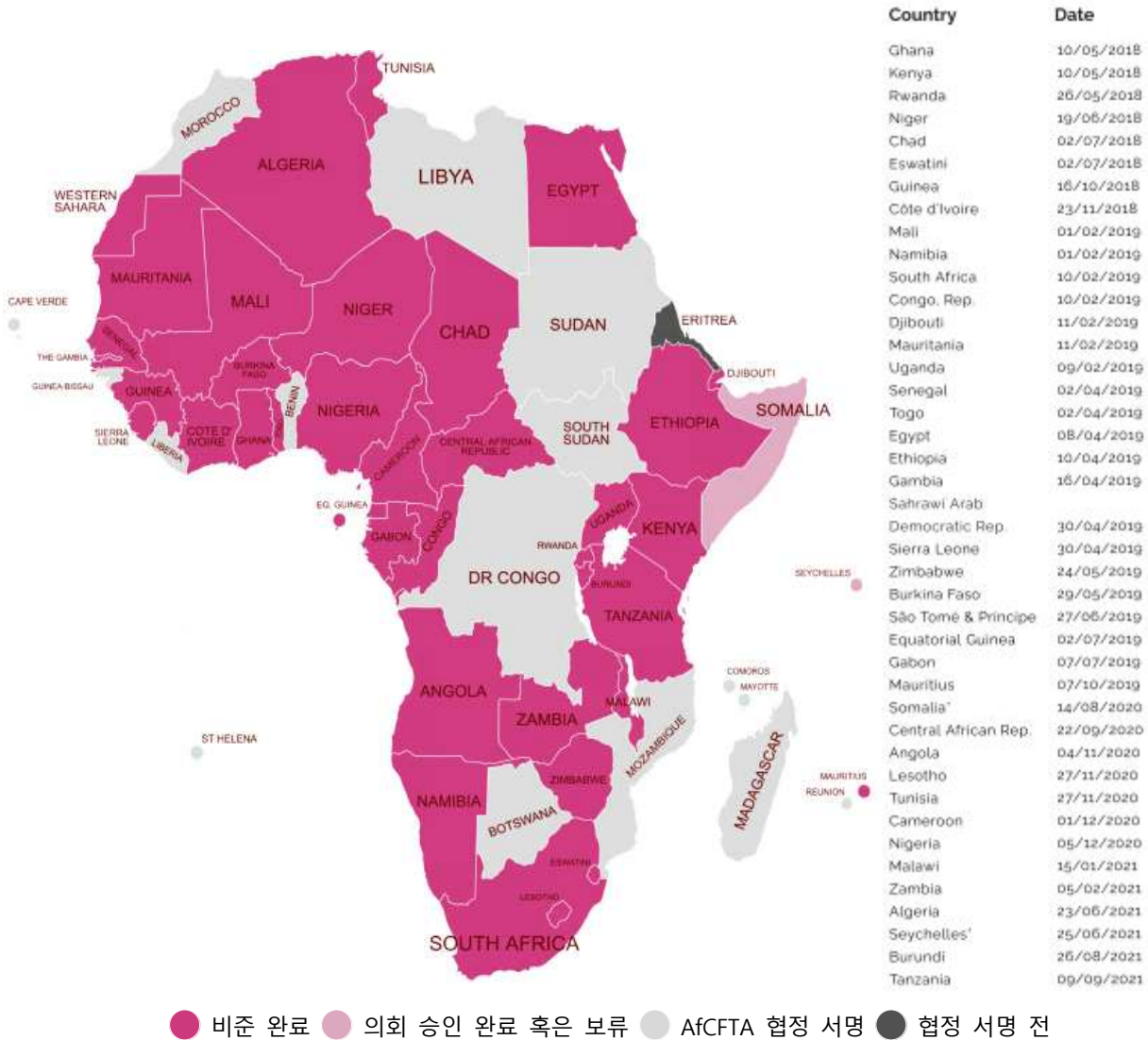
자료: UNCTAD data 기반으로 저자 작성.

- AfCFTA는 REC별 상이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서비스 무역 관련 무역장벽 등의 분야를 다루며 거버넌스 개선과 역내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AfCFTA 발효(21.1월) 후 2035년까지 아프리카 역내무역 81% 증가, 총수출 29% 증가, 실질소득 7%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통해 약 3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함(World Bank, 2020; AU, 2019).
- 또한, 역내무역 증가로 고용률 1.2% 증가, GDP 1~3% 증가, 무역적자 50% 감소 등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밖에도 FDI 증가,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혜택이 예상됨(Prinsloo, 2020).
- AfCFTA의 출범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옴. 2018년 1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라는 명칭이 공식 채택된 이후 2019년 5월 22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며 같은 해 7월 공식 출범하였고, 코로나로 6개월 연기된 후 2021년 1월 공식 발효됨.
- 2015년 6월 AfCFTA 창설에 관한 협상이 시작된 후 2018년 3월 AU 55개 회원국 중 44개 회원국이 AfCFTA 창설 협정문에 서명, 2019년 5월 협정이 발효됨.
- 최근 부룬디(8월)와 탄자니아(9월)의 비준으로 2021년 10월 기준 창설에 동의한 54개 회원국 중 총 41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에리트레아는 창설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그림 6 참고).
- 이는 2015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최소 비준국 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삼각자유무역지대(TFTA)⁴와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삼각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는 동남부 지역 아프리카 3대 REC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2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리비아,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24개국의 합의하에 2015년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10개 국가(보츠와나, 부룬디, 이집트, 에스와티니,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우간다, 남아공, 잠비아)만이 비준을 마친 상태로 공식 발효를 위한 기준인 14개국 비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그림 6> AfCFTA 비준 현황(2021.9.10 기준)



출처: Tralac(2021a).

- AfCFTA 협상은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 중임(표 4 참고).
- 원래는 2단계 협상(투자, 지식재산권, 경쟁에 관한 의정서와 그 부속 내용의 협의)과 건설, 교육, 환경 등 서비스 추가 개방 관련 협상을 공식 발효 시점인 2021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여전히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원산지 규정과 관세 관련 1단계 협상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임. 현재 AU는 3단계까지의 협상 완료 기한을 2021년 12월 말로 정함.

<표 4> AfCFTA 협정 구성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주요 협상안	- 상품교역 의정서 - 서비스교역 의정서 -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	- 투자에 관한 의정서 - 지식재산권에 관한 의정서 - 경쟁에 관한 의정서	- 전자상거래에 관한 의정서

자료: Tralac(2021b), p. 2.



III. AfC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역내무역 활성화 및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외부의존 감소 기대

- 2021년 1월 공식 발효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 65%가 AfCFTA 협정 아래 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참여하는 모든 아프리카 회원국은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장벽의 97%를 철폐하는 것에 합의함.
- UN에 의해 최빈개도국(LDC)⁵⁾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반 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 그 외의 국가는 5년 이내 관세 철폐를 완료해야 하며, 민감 품목의 경우 LDC는 13년, 그 외의 국가는 10년 이내 관세 자유화를 완료해야 함(표 5 참고). 역내무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3%의 보호대상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하는 데 합의함.
- 수입 금지, 수출 보조금, 라이선스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최혜국 조약을 바탕으로 50%까지 철폐할 계획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역내무역을 33%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관세 철폐로 인한 세수 손실에도 불구하고 161억 달러 규모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Prinsloo, 2020).

<표 5> AfCFTA의 단계적 관세 철폐 계획

분류	최빈개도국(LDC)	그 외의 국가(non-LDC)
일반 품목	관세선의 90%	관세선의 90%
	10년 동안 단계적 철폐	5년 동안 단계적 철폐
민감 품목	관세선의 7% 이내	관세선의 7% 이내
	13년 동안 단계적 철폐 (첫 5년은 현 관세 유지, 6년째 연도부터 감축 시행)	10년 동안 단계적 철폐 (첫 5년은 현 관세 유지, 6년째 연도부터 감축 시행)
예외 품목	관세선의 3%	관세선의 3%

자료: Apiko, et al.(2020), p. 2.

지역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및 경쟁력 확보

- 아프리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식량 및 연료의 큰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국가 경제도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역 상대국의 경기 변동, 무역 제한 정책 및 국제 상품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음.
- 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프리카는 지역이 수출하는 제조품의 3배 이상을 수입하며, 원자재는 상품수출의 약 75%를 차지함(표 6, 7 참고). 수입의 경우 제조품 비중은 원자재 비중의 2배 수준이며, 식료품은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 수입의 80% 이상 및 전체 원자재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함. 이는 식량 공급 관련 문제 발생 시 혹은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시 국내 식량안보에 큰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5) 2021년 10월 말 기준 아프리카 국가 중 총 33개국이 최빈개도국(LDCs)에 속함: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DR콩고,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적도기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표 6> 아프리카 지역의 상품 수출 구성(2020)

품목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원자재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	131,959	34.1
	연료	112,196	29.1
	진주, 귀석, 금	44,462	11.5
	소계	288,617	74.7
제조품	화학품	24,338	6.3
	기계 및 수송장비	36,074	9.3
	기타 제조품	37,457	9.7
	소계	97,869	25.3
총계		386,486	100.0

자료: UNCTAD data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7> 아프리카 지역의 상품 수입 구성(2020)

품목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원자재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	99,431	20.4
	식료품	79,633	80.1
	비식료품	6,289	6.3
	광물, 광석, 비철금속	13,509	13.6
	연료	58,718	12.1
	진주, 귀석, 금	5,402	1.1
	소계	163,551	33.6
제조품	화학품	65,239	13.4
	기계 및 수송장비	145,147	29.8
	전자제품 및 부품	22,213	15.3
	기타 기계 및 수송장비	112,836	77.7
	기타 제조품	113,345	23.3
	소계	323,731	66.4
총계		487,282	100.0

자료: UNCTAD data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아프리카 내에서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 구축과 산업화에 주력하기 시작함.
- 기존 REC는 지역 내 국가들의 주력 수출품목이 겹치는 점과(예: 서부의 원유 및 광물자원, 동부의 커피, 차 등 농산물) 대부분 국가가 자본과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제조 및 가공단계가 아닌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인해 효과적인 지역 가치사슬 구축이 어려웠음.
-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원료 형태를 수출하고 제조품을 수입하는데, 한 예로 세계적인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코코아 열매를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높은 가격으로 초콜릿 제품을 수입함(주동주 외, 2017, pp. 62~63). 또한, 아프리카는 전 세계 코코아 원두 생산량 중 73%를 차지하지만, 코코아 분말 생산 비중은 16%에 불과함(AfDB, 2016, p. 2).
- AfCFTA는 기존 REC가 가진 지역 가치사슬 구축의 한계를 넘어 산업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AfCFTA는 무역 자유화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협력, 특혜관세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비교우위 분야를 특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생산역량 강화 및 제조 단계로의 확충을 통해 단순 상품 생산에서 가공 공정을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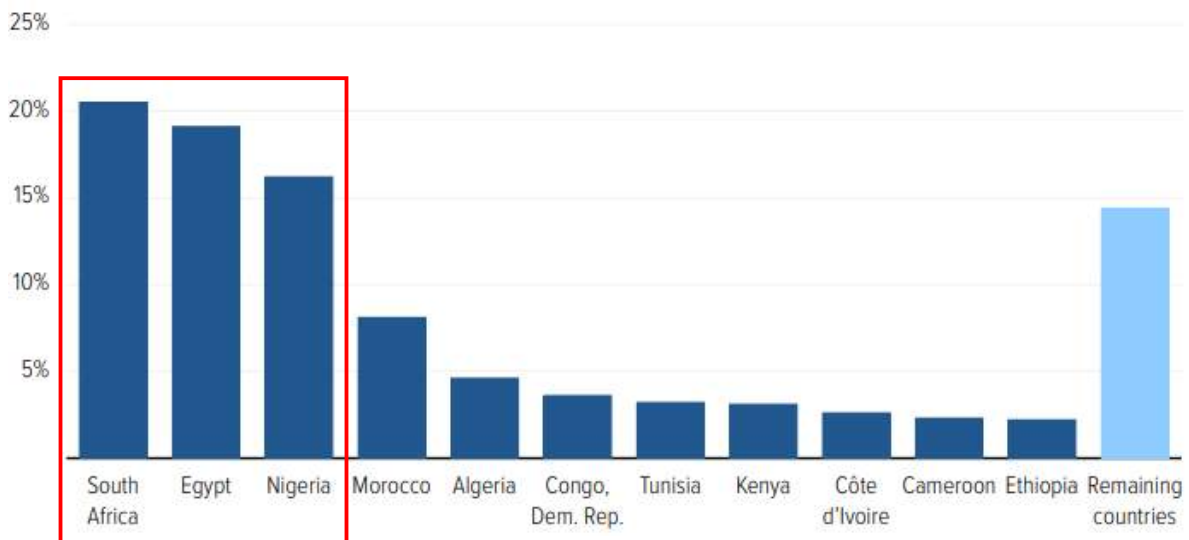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역량을 제고하여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가능케 할 것임.

- 세계은행은 AfCFTA가 역내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특히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제조품 관련 역내무역을 110%, 역외 수출을 46%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

국가별 편익 차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그러나 AfCFTA에는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독식할 가능성임.
- AfCFTA는 회원국별 경제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비교하여 국별 소득격차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아프리카에서 경제규모가 큰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3개국은 전체 아프리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Akeyewale, 2018).
- AfCFTA를 통한 혜택의 차이는 국가별 제조업 및 인프라 발달 수준에 따라 클 것으로 예상됨.
-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3개국은 아프리카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로 아프리카 전체 제조활동 부가가치(Manufacturing Value Added: MVA)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로코까지 합산할 경우 70% 이상을 4개국이 차지함(그림 6 참고).
- 또한, 동 3개국은 아프리카 전체 역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남아공은 전체 역내 수출의 35%, 수입의 15%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생산과 소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표 8 참고).

<그림 6> 아프리카 주요국의 제조활동 부가가치(MVA) 비중



자료: Signe(2018), p. 5.



<표 8> 아프리카 역내무역 상위 10위 수출입국가(2019 기준)

수출			수입		
순위	국가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남아공	35	1	남아공	15
2	나이지리아	16	2	나미비아	7
3	이집트	7	3	가나	7
4	코트디부아르	4	4	보츠와나	7
5	짐바브웨	4	5	잠비아	5
6	나미비아	3	6	나이지리아	5
7	모로코	3	7	모잠비크	4
8	케냐	3	8	코트디부아르	4
9	에스와티니	3	9	DR콩고	3
10	세네갈	3	10	짐바브웨	3

자료: WEF(2021), p. 11.

- 이로 인해 AfCFTA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은 제조업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반면 이들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인프라 및 산업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는 피해를 볼 수 있음.
- AfCFTA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아프리카 대륙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역내 시장 간의 거리가 매우 먼 것이 특징임. 이러한 문제는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역내 시장을 분절화(fragmentation) 하며 인접국과의 경제교류를 저해하고, 역내무역의 거래 비용을 높이며 역외무역 의존도를 높임.
- 현재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LDC로 분류된 국가들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미흡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는 상품 생산과 운송 등을 어렵게 하여 AfCFTA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편익을 얻기 어렵게 함.
- 따라서 회원국 간 인프라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AfCFTA 효과적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이나,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축에 큰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됨.



VI. 시사점 및 전망

효과적인 대 아프리카 협력 및 진출을 위한 AfCFTA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

- 아프리카는 지구 상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잠재력이 큰 시장임.
- 세계 경제의 마지막 성장 엔진으로도 일컬어지는 아프리카는 대륙이 보유한 풍부한 인적 및 천연자원과 코로나19 이전까지 보여준 높은 경제성장률, 중산층의 빠른 증가 등 거대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줌.
-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유럽 이외에도 중국, 일본, 인도 등은 일찍이 아프리카 시장에 주목하며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주력해옴.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시장이 지닌 잠재력과 비교하면 교류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한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은 1% 수준에 불과함(표 9 참고)

<표 9> 한국의 대륙별 수출입(2020)

단위: 백만 달러

대륙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아시아	312,397	60.96	235,939	50.45
북미	79,580	15.53	61,907	13.24
유럽	67,551	13.18	76,690	16.40
중남미	19,501	3.81	20,381	4.36
중동	14,675	2.86	44,725	9.56
대양주	12,991	2.53	20,738	4.43
아프리카	5,774	1.13	4,173	0.89
기타지역	68	0.01	3,081	0.66
총계	512,538	100.00	467,63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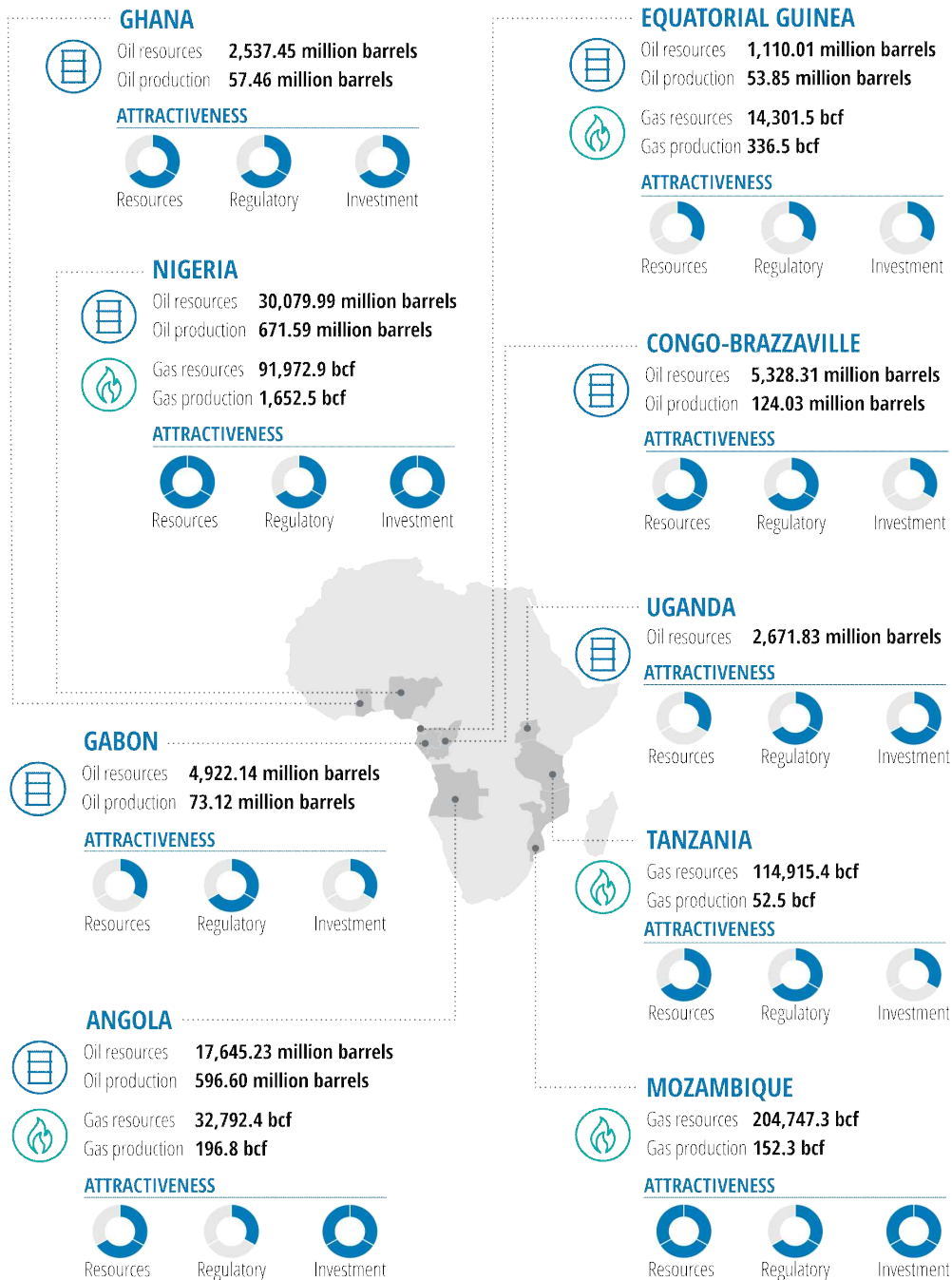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통계.

- AfCFTA는 한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50개국이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별 주요국을 거점국으로 활용해옴. 한 예로 2010년 정부는 아프리카 경험 5개 거점국으로 남아공, 에티오피아, 알제리,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기관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거점국을 선정함.
- 그러나 지역 및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 및 규정,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으로 거점국이 속한 REC 내에서만 진출 확대가 가능했으며, 무역통합 수준이 낮은 REC의 경우 같은 공동체 내 인접국으로의 확대도 쉽지 않았음.
- 향후 AfCFTA를 통해 회원국 간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 관련 규정이 통일될 경우, 아프리카 거점국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인접국 및 다른 지역 국가로의 사업 확대 및 무관세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AfCFTA가 공식 발효된 현재 AfCFTA의 적극 활용을 위한 거점국 선정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대 아프리카 협력 및 진출 확대는 미래 시장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중요함.
- 아프리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국제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함.



- BP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프리카는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의 각각 8.8% 및 6.0%를 차지했는데, 최근 발견된 유전 및 가스전과 향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증가는 아프리카의 에너지 생산 비중은 물론 아프리카의 중요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됨(Szymczak, 2021).
-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은 가나, 나이지리아,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콩고,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임(그림 7 참고).
- 일찍이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해 노력해온 중국의 경우, 2019년 기준 총 원유 수입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중동(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Valori, 2020).

<그림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원유 및 가스 생산국



자료: Botes, Lane and Marais(2019).



유망 분야 및 시장 수요를 고려한 협력 및 진출 분야 선정

- AfCFTA 시행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가 특히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수요를 반영한 유망 품목은 자동차, 기계, 컴퓨터 및 기타 IT 기기 등으로 볼 수 있음.
- **(농업)** 농업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 고용의 약 39%, 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정작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환금 작물(코코아, 담배, 커피 등) 위주의 생산과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농식품 관련 역내무역은 지난 10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총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27%, 17%만을 차지함. 따라서 AfCFTA의 시행을 통한 농업 관련 가치사슬 구축과 역내무역 촉진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품 가격 안정화와 식량 안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Apiko et al., p. 8). 이에 농업 장비 및 농업 기술, 농업 현대화, 농산물 가공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시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계)** 아프리카는 제조업 역량 강화 및 외부 의존도 감소를 위하여 제조업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며⁶⁾, AfCFTA로 제조품의 역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조 관련 기계의 수요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자동차는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수입품 중 하나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현상의 가속화, 그리고 중산층 확대와 소득 및 지출 증가는 아프리카에서 개인용 및 상업용 차량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킴. 그러나 자본, 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업의 미흡한 발달로 역내 생산량은 이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 현재 아프리카의 인구 1,000명당 차량 수는 42대로, 세계 평균(180대)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지역인 남미(176)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79)과 비교해도 차량 밀도는 낮은 편임(WEF, 2021, p. 31). 향후 중산층과 도시인구의 지속적 확대, 높은 청년인구 비율을 미루어 볼 때 차량 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됨.
- **(IT 기기)** 산업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퓨터화(computerization)와 디지털화 현상과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증가한 전자 상거래 이용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IT 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기업 및 역량의 부족으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임.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IT 제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중임. 인터넷 이용률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IT 기술의 활용을 높이며 IT 기기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6) 지역별 주요 산업화 정책: COMESA 산업화 전략(COMESA Industrial Strategy, 2017-2026); EAC 산업화 정책(EAC Industrialisation policy, 2012-2032); 서아프리카 공동산업정책(West African Common Industrial Policy: WACIP, 2010-2030); SADC 산업화 전략 및 로드맵(SADC Industrialisation Strategy & Roadmap, 2015~2063)



[참고 문헌]

- 변용. 2014.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역내협력 및 통합현황 분석 및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이재훈, 김경하, 김은경, 서상현. 2019.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DB). 2016. "아프리카 식량 보급: 농업 번혁을 향한 여정(한국어판)." [https://www.afdb-org.kr/wp-content/themes/meteo/pdf/Top_2_\(Korean\).pdf](https://www.afdb-org.kr/wp-content/themes/meteo/pdf/Top_2_(Korean).pdf)(접속일: 2021.10.26).
- 정재욱, 김예진, 정민지. 2019.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동주, 이재훈, 윤정현, 강지현, 나혜선. 2017. "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 동부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산업연구원.
- Akeyewale, R. 2018. "Who are the winners and losers in Africa's Continental Free Trade area?." <https://www.weforum.org/agenda/2018/10/africa-continental-free-trade-afcfta-sme-business/>(접속일: 2021.10.27).
- Apiko, P., Woolfrey, S. and Byiers, B. 2020. "The Promise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DPM*, Discussion paper no. 287.
- AU. 2019. "The African Union Sub-Committee of Directors General of Customs addresses the role of Customs in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https://au.int/sw/node/37382>
- AU. 2020. *African Integration Report: Towards and Integrated, Prosperous and Peaceful Africa*. AU: Addis Ababa.
- Botes, A., Lane, A. and Marais, H. 2019. "The new frontier: Winning in the African oil and Gas Industry."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industry/oil-and-gas/africa-oil-gas-industry-energy-reserves.html>(접속일: 2021.10.26).
- WEF. 2021. "Connecting Countries and Cities for Regional Value Chain Integration: Operationalizing the AfCFTA." https://www3.weforum.org/docs/WEF_Regional_Value_Chain_Integration_Automotive_Case_Study_2021.pdf(접속일: 2021.10.26).
- Capon, Chad. 2019. "What role will RECs have in AfCFTA implementation?." *imani development*. <https://imanidevelopment.com/what-role-will-recs-have-in-afcfta-implementation-by-chad-capon/>(접속일: 2021.10.26).
- ECA, AU and AfDB. 2017. *Assessing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VIII*. UNECA: Addis Ababa.
- Malhotra, S. 2021. "Policy seminar: AATM report outlin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intra-African agricultural trade." <https://www.ifpri.org/blog/policy-seminar-aatm-report-outlines-opportunities-and-challenges-intra-african-agricultural>(접속일: 2021.10.26).
- Prinsloo, C. 2020. "Understand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SAIIA*. <https://saiia.org.za/research/understanding-the-african-continental-free-trade-agreement/>.
- SADC, 2012. "COMESA, EAC, and SADC States urged to rapidly conclude processes towards ratification of TFTA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https://www.sadc.int/news-events/news/comesa-eac-and-sadc-states-urged-rapidly-conclude-processes-towards-ratification-tfta-facilitate-implementation/#:~:text=The%20TFTA%20Agreement%20was%20launched,the%20benefit%20of%20the%20people>(접속일: 2021.10.26).
- Signe, L.. 2018. "The Potential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ization in Africa: Trends,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Brookings*.
- Szymczak, P. D. 2021. "Africa Set To Fuel Asian Growth and Its Own Brighter Future." <https://jpt.spe.org/africa-set-to-fuel-asian-growth-and-its-own-brighter-future/>(접속일: 2021.10.26).
- Tralac. 2021a. "Status of AfCFTA Ratification."



<https://www.tralac.org/resources/infographic/13795-status-of-afcfta-ratification.html>(접속일: 2021.10.26).

Tralac. 2021b. "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tralac.org/documents/resources/faqs/4293-updated-tralac-afcfta-faqs-march-2021/file.html>(접속일: 2021.10.26).

Valori, G. E. 2020. "The African oil markets of China and the continuous daily needs for crude oil".

moderndiplomacy.

<https://moderndiplomacy.eu/2020/11/11/the-african-oil-markets-of-china-and-the-continuous-daily-needs-for-crude-oil/>(접속일: 2021.10.26).

World Bank. 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